



[마켓]
권용원 금투협 회장
“거래세 폐지 등
선진화방안 추진”
08



Life

[피플]
故이인희 빈소에
삼성·재계
발길 이어져
L3



4895만명 대이동... 4일 오전·5일 오후 피해야

고향가는길

설 연휴 평균 885만명 이동
고속버스·열차 등 추가 운행
우회 정보 전광판 통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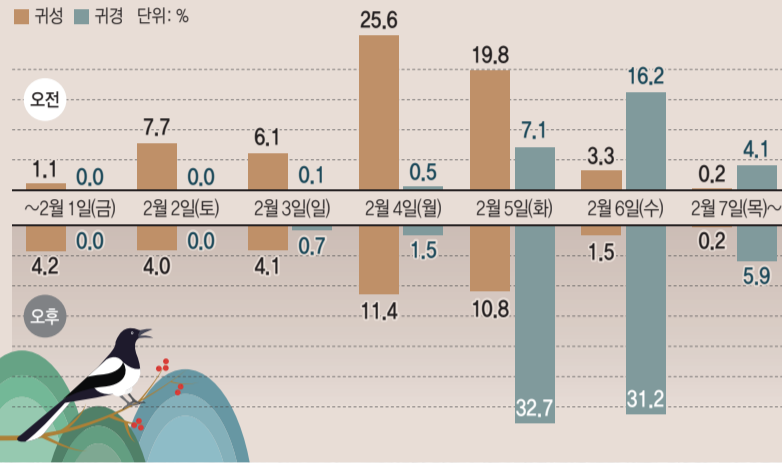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4895만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전망이다.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인 2월 1~7일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4895만명으로, 1일 평균 885만명이 움직인다.

이 중 10명당 8명(86.2%)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대로 예측됐다.

교통 혼잡은 귀성객이 집중되는 설 하루 전(4일) 오전과 귀경객이 몰리는 설 당일(5일) 오후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 설 당일엔 최대인 885만

설 연휴 시간대별 이동 비율



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귀경 시에는 차례를 지낸 후 여행을 떠나는 날이객의 교통량과 귀경객 교통량이 동시에 집중돼 5~6일 교통 혼잡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성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목포까지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

9시간 10분 등 전년 대비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 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 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6편 ▲여객선 144회 더 운행된다. 귀경객을 위해 5~6일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다. 2월 4

주요 도시 간 예상 평균 소요시간



일 오전 0시부터 6일 밤 12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요금소에서 요금정산 없이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졸음쉘터 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휴게소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연장(60개소)했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9개 구간(932km)과 국도 12개 구간

(181.9km)에 대해서는 우회 정보를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제공한다.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평시 운영 중인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11개 구간(36km)에서 임시 갓길 차로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 구간에서는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4개 구간)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는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고속도로 언양~영천(55.0km) 등 2개 노선 61.5km와 국도 24개 구간(182.62km)을 준공 개통해 소통능력을 높인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은 내달 2~6일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체증을 피하려면 출발 전 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체제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모바일 게임으로 지루함 날리자

게임업계 다양한 이벤트 진행 설 특별 아이템 획득 기회도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랜만에 가족·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가는 귀성객들로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긴 연휴 기간인 만큼 전국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로 엄청난 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지루한 귀성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게임업계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이런 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 17일 공식 출시돼 양대 마켓 매출 5위 안에 든 자사 지식재산권(IP)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스피릿위시’의 복주머니 제작 이벤트를 연다. 이용자는 보물상자 갈매기 몬스터를 사냥하면 복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비단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야생의 땅: 듀랑고’에서는 2월 26일까지 피로도를 낮춰주는 신규 건축물 ‘식혜 우물’, 원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제작 가능한 신규 음식 ‘떡국’, ‘만두’, ‘떡만둣국’을



‘메이플M’ 설 이벤트. /넥슨



넷마블 모바일 게임 설 기념 이벤트. /넷마블



‘블레이드&소울’ 설맞이 이벤트. /엔씨소프트

선보인다. ‘메이플스토리M’에서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는 이용자 전원에게 ‘황금 돼지 모자’, ‘황금 돼지 대미지 스킨’, ‘야기 돼지 꾸미 패키지’를 지급하고, 온라인 계정을 연동한 유저 중 2만5000명을 추첨해 ‘넥슨캐시(1만원)’를 제공한다.

넷마블은 자사 인기 모바일 게임

9종에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만해도 무기, 장신구, 도안, 경험치·은화·아이템 획득 버프 아이템 등이 들어있는 설날 선물 꾸러미를 선물하고 출석 이벤트를 통해 영웅장비도안을 제공한다.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은 2월 14일까지 ‘웃놀이 환관’ 이벤트를 열고, 모바일 캐주얼 보드 게임 ‘모두의 마블’도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4000다이어를 지급한다.

엔씨소프트의 MMORPG ‘블레이드&소울’ 이용자는 2월 27일까지 ‘새해 복 드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는 블소 접속 시간에 따라 ‘2019 복주머니’와 ‘2019 설 주화’를 받는다. 또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비단 옷감’을 받을 수 있다.

네시삼십삼분(4:33)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삼국블레이드’ 이용자는 2월 1일부터 세뱃돈미션 이벤트와 설날 푸시 이벤트를 연다. 이용자들은 이벤트에 참여하면 4성 명장·여걸 선택권, 패왕주화, 금화, 보옥 등 게임 내 재화를 얻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車 무상점검 받고 고향 가세요

완성차 5개사 자동차 무상점검 장거리 운전·계절 감안해 관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참가하는 무상점검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르노삼성, 쌍용 자동차와 한국지엠의 전국 2518개 직영·협력서비스센터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현대·기아차는 설 귀성길 차량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300여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개의

오투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쌍용차의 차량점검서비스 내용은 히터·에어컨 작동상태는 물론 각종 오일류 및 번브류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0여개 항목으로 귀성·귀경길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일상점검 서비스가 실시된다.

한국지엠 세보레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 방문시 차량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안전 점검과 더불어 냉각수, 엔진오일, 워셔액 등 소모품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지원한다.

타이어업계에서는 타이어뱅크가 오는 10일까지 설 연휴 타이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명절 장거리 운전과 겨울이라는 계절 특수성을 감안해 타이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



타이어뱅크 직원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 차량의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타이어뱅크